

# 3.1 운동과 탑골공원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

# 1. 3.1운동의 서막이 열린다

## 1) 고종의 사망과 장례식 예행연습

- 1918년 겨울 스페인 독감 대유행
  - 1919년 1월 21일, 고종의 사망(덕수궁 함녕전, 만67세)
  - 영친왕 이은과 일본 황족 나시모토 마사코(이방자)의 결혼 직전 갑작스런 사망으로 독살설 소문
  - 1919년 2월 28일, 고종 국장 예행연습
  - 천도교 간부 오세창과 보성사(독립선언서 인쇄) 간부 이종일, 기독교계, 불교계, 서울시내 학생대표 등
- =>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으로



# 역사현장을 가다-탑골공원





<고종황제>



<마지막황제 순종>







<이토 히로부미와 영친왕>



<영친왕과 이방자 여사>





# 고종황제 장례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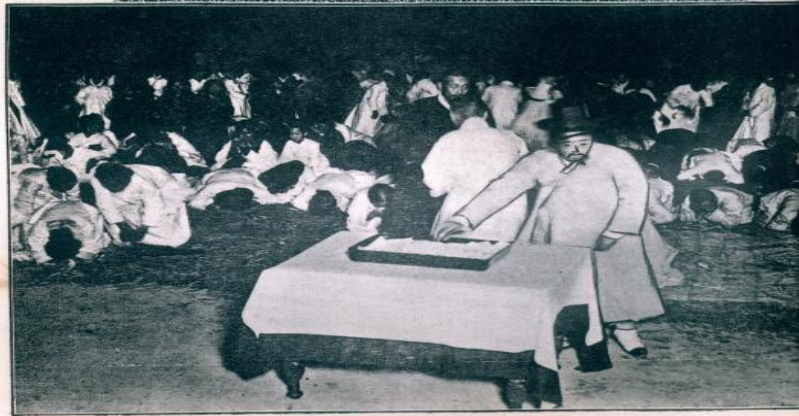


# 고종황제 장례식 (서울역사박물관 유물정보)





# 고종황제 장례식



間 夜 同 (下) 少老女男人鮮るす哭働に前門漢大 (上)  
고종황제 장례식



(てに庭内設事成) 威親御るす列参に祭服成 (下)  
고종황제 장례식

殿正殿院の中行執御祭服成 (上)  
고종황제 장례식





# 고종황제 장례식



# 고종황제 장례식



# 고종황제 장례식



衆群るす集雲に心中を日進鑿大前門漢大日前の葬國  
의 회 을 해 리





# 고종황제 장례식



# 고종황제 장례식





# 고종황제 장례식



(てに外門大東)ふ向に所墓御谷金豊大も依に列葬式舊し終國葬國  
(此に外門大東)ま新遊に所墓御谷金豊大も依に列葬式舊し終國葬國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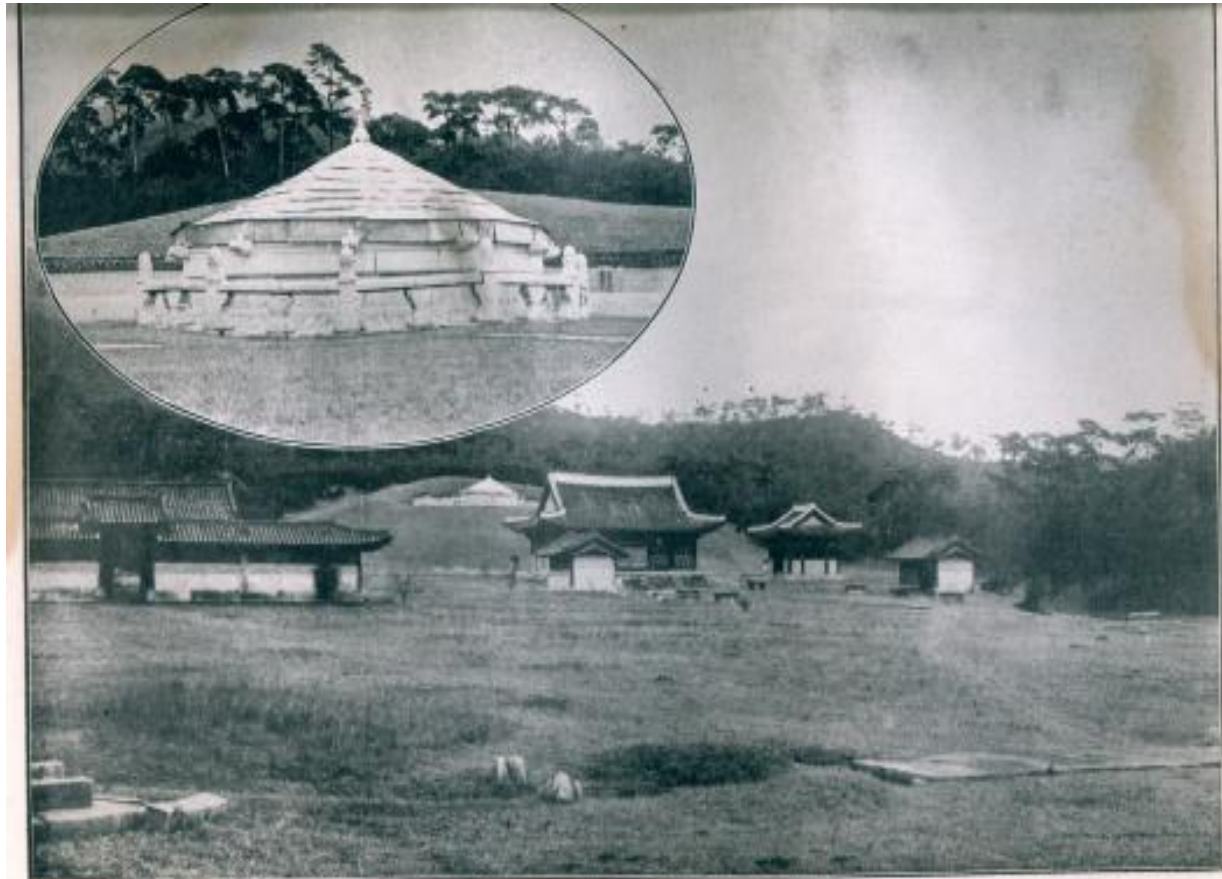


# 고종황제 장례식



車馬御の下殿王李(下) 過通の臺大(上) 衆群の觀拜列葬るけ於に外門大東  

 列 列 ぎき ぎき 列 列



陵封御同(內麗上)所墓御里谷金面金洪郡州楊



# 1. 3.1운동의 서막이 열린다

## 2) 만세시위 계획

- 거사일: 고종 황제 국장 예행연습 2월 28일, 3월 3일 국장일, 3월 2일 일요일=> 3월 1일
- 시간: 기미년 3월 1일 정오(12시)가 아닌 오후2시
- 장소: 탑골공원=> 서울 도심 한복판, 국장 조문행렬 참석 가능 장소
- 독립선언서 비밀 인쇄(2월 27일 밤9시~11시): 천도교 측 인쇄소 보성사 21000부
- \* 여기서 잠깐! 보성사에 들이닥친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 신철
- 독립선언서 배포: 천도교, 기독교, 학생단 등



## 2. 3.1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

### 1) 학생대표단의 활동

- 1919년 1월말, YMCA(기독교청년회) 중심 독립선언 논의, 학생단 구성
- 2월 28일 탑골공원 선언식 소식 전달
- 보성전문의 강기덕, 경성의전(서울대 의대 전신) 한위건의 역할
- 3.1일 오후 2시,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들 4~5천명 혹은 200명
- 학생대표 강기덕의 태화관 방문과 민족대표
- “탑골공원에서 선언식을 한다고 학생들을 모이게 했으니, 여기서만 발표하시면 거짓말이 됩니다”
- 민족대표 최린 “사람이 많은 소란스러운 곳에서만 하는 것이 선언이 아니네....선언서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그것이 곧 선언이 될 것이니 굳이 공원에 갈 필요는 없네”





## 2. 3.1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

-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 낭독, '조선민족 자주독립 만세'
- 종로 거리로 나가 행인들에게 "지금 파리강화회의에서 우리나라 독립이 승인되었으니 독립만세를 부르자" 권유
- 독립선언서 배포, 서울 시내 거리 행진
- 종로, 남대문, 광화문, 서대문, 덕수궁 대한문 앞, 창덕궁 앞, 프랑스 영사관, 미국 영사관 앞 등에서 시위 군중 만세
- 용산 주둔 일본군 출동, 혼마치(일본인 집중거주구역. 지금의 충무로) 방어선. 시위군중 134명 체포



## 2. 3.1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

### 2) 민족대표 33인의 행적

- 민족대표 33인은 어떻게 선출되었나?
- 각 지역별 민족대표로 선출된 것은 아니고, 각 종교 추천
- 천도교 15인, 기독교 16인, 불교 2인 총 33인(2월 25일 확정)
- 2월 27일 서명, 날인->독립선언서 인쇄
- 2월 28일 밤 종로구 가회동 손병희의 집 대표단 모임에서 장소 변경; 탑골공원=> 태화관(요릿집 명월관 지점)



# 역사청문회-민족대표 33인의 행적

- 3월 1일, 민족대표(지방거주 4인 제외, 총29인) 12시쯤 태화관 별관에 모여 독립선언식과 만세삼창
- 학생대표의 탑골공원행 권유를 거부
- 종로경찰서에 의해 남산 경무총감부로 연행됨
- 민족대표 33인이 변절을 한 것인가????

